

# “광주 청년과 문화생활 접목공간 마련하고 파”

광주변호사회장에 임선숙  
“법률적 약자 발굴 지원”



아트헤드헌터 송현아 대표

“청년들은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경제적·생활적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저는 그런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를 청년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트(문화)+헤드헌터(중개인)의 접목어인 ‘아트헤드헌터’ 송현아 대표(25·여)는 청년들이 문화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느끼며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

## 연애·인문학 강좌·카페서 다양한 기획활동 전개 지난해 사회적기업 선정... ‘소통·힐링’ 공연 첫발

법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 ‘아트헤드헌터’를 만들 당시 송 대표는 광주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정작 문화를 접해야 할 청년들을 위한 문화가 없다는 것에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막 신입사원이 되거나 아직 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수십만원을 뛰어넘는 뮤지컬공연이나 콘서트, 미술 등은 접할 수 없는 그저 어른들을 위한 문화생활에 지나지 않았다.

송 대표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던 20살 때 지금의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이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공연기획 등에 관심이 많았던 송 대표는 지난해 그런 열망으로 청년과 문화를 연결하는 ‘아트헤드헌터’를 창업했고, 다양한 컨셉트로 청년과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카페를 빌려가 테이블마다 차별화된 부스를 마련, 청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연애에 대한 공금증 등을 강연 개념으로 풀어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해주기도 하고, 미술·미술·연극·개그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공연도 준비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송 대표는 올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인문학 강연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내년 공연기획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우선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연애강좌와 개그공연, 연극 등

의 퀄리티를 높여 참여율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더 많은 청년들이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파트 강화도 꾀하고 있다.

송 대표는 “나도 그랬지만 청년들 대부분이 문화는 돈이 있어야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 어른들만의 전유물로 느껴왔던 게 사실”이라며 “어른들만의 문화는 어른들만의 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만의 문화,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적은 돈으로 문화를 기획하다 보니 대형 기획사에 비해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청년들이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편하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꿈이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제55대 광주지방변호사회장에 임선숙(52·연수원 28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회는 지난 10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선거권자 492명 중 2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7명(97.5%), 반대 6명(2.5%)으로 임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감사에는 서정암(56·연수원 26기), 서일석 변호사(52·연수원 30기)가 선출됐다.

임 변호사는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전남대 출신 첫 여성 사시 합격자이자 전국 최초 여성 지방변호사회장이 됐다.

임 변호사는 다음 달 28일 예정된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임 변호사는 “회원간 친목과 화합·상호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역단체들과 협력하고 법률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변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기자

## 순천만 AI 항원 ‘저병원성’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저병원성인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중간검사서 검출된 AI항원의 고병원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염성과 폐사율이 낮은 저병원성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통보를 전달 받았다.

앞서 지난 4일 충북대 수의과대학팀이 순천만 희망농업단지에서 야생조류 분변 300점을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중간 검사결과 H7형과 H4, H3형 AI항원이 검출돼 고병원 여부를 검사했다.

시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야생조류 예찰

지역 ‘설정’을 해제하고 해당지역 내에 사육하는 가금류의 이동제한도 풀었다. 다만, 지난 10월부터 실시해온 AI 예방과 습지 연결농로 소독 등 차단방역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순천만 인근지역에서는 총 197농가에서 18만5,200여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 중 전업농은 5농가(18만마리)다. 순천만습지는 지난해 11월 20일 고병원성 AI바이러스(H5N6) 확진 판정을 받고 이튿날부터 53일간 폐쇄된 바 있다.

순천시는 올해 AI가 발생하더라도 당장 전면폐쇄하는 대신 정부와 전남도 등과 협의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온기텐트서 추위 피해가세요

11일 오전 광주시 북구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온기텐트(바람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북구는 이번주까지 전남대 학교 후문 버스승강장 등 28개소에 온기텐트를 설치하고 내년 3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 공사현장 건설자재에 승용차 날벼락...2명 다쳐

11일 낮 12시 21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한 상가 신축현장에서 중장비가 옮기던 철제 H빔이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승용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차체가 파손됐다.

경찰은 건설자재를 공사장 내부로 나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나라 기자

## 학생들 ‘폭행 의혹’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해임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때렸다는 의혹이 일어 해임됐다.

11일 목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목포 초등학교는 기간제교사 A씨를

최근 해임했다.

퇴직교사 출신인 A씨는 출산휴가를 간 교사를 대체해 10~12월 4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는 지난달 9일 중간놀이 시간에

학생 4명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동급생 학부모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학교 측은 해당 학급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19명이 폭행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30일 A씨를 해임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 “내 외투 어디에 있어?”

○...차 안에서 자신의 외투가 사라졌다며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40대 취객이 경찰서행.

○...1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 모씨(41)는 이날 새벽 0시 25분께 서구 풍암동 한 길거리에서 자신이 외투를 차 안에 뒀는데 사라졌다며 애꿎은 대리기사 서 모씨(42)에게 욕설을 하고, 1시간 가량 서씨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전씨는 술에 취해 차 안에 옷을 뒀는지, 술집에서 나올 때 옷을 안가지고 나왔는지 기억조차 제대로 없다”며 “술이 깨면 후회할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김종찬 기자

# 신창동 2층 근린상가, 급매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가도빌딩 4층중 2층 201호
- 삼거리 코너 건물,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0억
- 급매 - 상담후
- 문의. 010-3605-5000